■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예배　제목: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　성경:신명기10장12-16절

>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
>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
>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
>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
>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10:12-16)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때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였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으면서 다가올 가나안 복지에서의 생활을 예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백성들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악이 얼마나 악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지를 아신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향한 세부계획에 돌입하셨다.

-세계사는 구원사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피로 죄를 씻김받은 자들을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성만찬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 내시고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영적성장을 이루도록 하셨으며,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지도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이 계명은 완벽하여,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 계명에는 십계명, 민법, 형법, 정결법, 제사법이 있다.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정결법은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여 진다.

-민법이나 형법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에서 정한 법을 지키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법부의 권한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은 십계명인데,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상 네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법이다.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여섯 가지 계명이다.

-그러면 이 열가지 계명만 지키면 행복이 보장되는가? 이런 질문은 아직 열가지 계명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엉뚱한 질문이다. 마치 기계를 사용해 보지 않는 사람이 기계를 파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과 같다.

-십계명을 담아내는 환경이 중요하다. 마치 윈도즈7을 설치하여 사

용하기 위한 삼성컴퓨터가 필요한 것과 같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십계명을 주신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양의 피로 죽음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애굽왕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직 버리지 못한 애굽에서의 더러운 습관 때문에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공포된 계명이다.

-따라서 십계명은 계명의 내용 못지 않게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핵심적 하드웨어인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생활의 구조로서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소중히 여겨야 십계명도 제대로 지켜지며, 약속된 행복도 정확하게 얻게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구조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다. 전도하며, 복음을 받아 들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며 살아있는 제사로서의 예배에 참여함이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구조이다. (가정과 일터는 이 구조의 확장이다.)

-또한 십계명을 지키려고 보면 계명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다.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오히려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어렵다.

-즉, 십계명은 관계의 문제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보다는 관계가 친밀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물론 정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불의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임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십계

명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설령 실수나 사정상 계명이 어김이 되었다 해도 얼마든지 이해되고 용서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된다.

-실제로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즉시로 방탕한 삶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악한 영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사람일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끊임없이 도둑질에 대한 욕구가 치솟는 사람의 경우, 또는 습관적으로 도둑질 하는 경우, 또는 상황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 그는 틀림없이 도둑의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우선 율법적으로라도 도둑의 영을 묶어야 한다. 그는 도둑의 영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일생을 불행하게 지낼 것이다.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 밖에는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다시 이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 상한 심령이 된다.

-그래서 모세는 우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쉽게 여기거나 그 앞에서 건방지거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실은 십계명이 이 한 계명에 다 속해 있다.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복

종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위해 생각을 정리하라는 뜻이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겠노라고 작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조는 교회를 통한 예배이다. 새해를 맞아 이시간 예배를 위해 작정하자.

−주일 성수를 작정하고 기타 예배를 작정하며, 헌금과 헌신과 전도를 작정하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성령의 사람 다윗　말씀: 사무엘하1장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당시의 상황 설명

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사울왕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였다. 동족이며, 자신이 모시던 왕이며, 형제와 같은 요나단의 소식이 아닌가?

-이 청년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라 여겨서 한 걸음에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먼저 진위 파악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진위파악이 우선.

6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다급한 상황에서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상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며, 이미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을 이 한 말로 인해서 드러난다.

9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 청년의 거짓말 시리즈;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당시 사울은 활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는데, 적군들이 와서 자기를 모욕할까 두려워 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아닌가?

-그런데 이 청년은 당시 사울이 아무런 생명의 지장이 없이 살아있었음을 주장함. 즉, 자기의 거짓말을 과장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말임.

-내가 고통중에 있나니. 왕이 다치지 않았는데 고통중에 있을까? 그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빨리 도망하였으리라. 어불성설.

-너는 나를 죽이라;아무리 급하다고 원수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사울은 아니다. 그것은 크나큰 수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챈다.

10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이 가지고 온 것은 틀림없이 사울왕의 것이므로 사울왕이 죽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청년이 직접 죽였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가 사울의 간청에 따라 사울을 죽였다고 보기 힘들다. 이것은 사울을 두 번 죽이는 것이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도 큰 수치가 된다.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일단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확인했으므로 정식으로 애도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공식적으로 슬퍼하고 금식하여 사울 가문에 대한 예를 다하였다.

13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결코 사울왕이 간청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지는 못한다. 사울왕도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죽여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사울왕을 상을 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을 고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다. 아무튼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15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은 이 청년을 사형에 처함으로 자신은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고히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사울 가문과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북쪽 10지파를 품기 위한 다윗의 정략적 지혜이다.

-성령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결코 원수를 양산하지 않는다.

16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노래;활에 죽임을 당하였고,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자였으며,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는 족속이었으니 만큼 사울왕을 위한 애가를 활노래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윗은 특히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침으로 유다 족속들이

베냐민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게 대한 적대적 감정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유다 사람들의 여론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다윗의 모습.

> 19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망자를 위한 애도. 다윗은 최대한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일만을 애가에 담았다.

> 20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
> 21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
> 22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님을 강조함. 그가 용사로서 민족을 위해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다는 것을 강조함.

> 23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
> 24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
> 25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
> 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
> 27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삼하1:1-27)

다윗은 신앙생활을 위한 모범답안이다. 그가 완벽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행적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방향제시와 삶의 해석과 지혜가 된다.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자, 즉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음을 기억하자.(물론 구약적 의미에서의 성령충만이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특히 다윗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된다. 이번 성경퀴즈 대회를 통해서 큰 영적 도약이 있을 것이다.